

예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8.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8 |
| IV. 국제신인도 | 13 |
| V. 종합의견 | 15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52.8만 km ² | G D P | 391 억 달러(2012년) |
| 인구 | 25.4백만 명(2012년) | 1 인 당 GDP | 1,538 달러(2012년) |
| 정치체제 | 공화제 | 통화단위 | Yemeni riyal(YR) |
| 대외정책 | 친아랍, 친미노선 | 환율(달러당) | 214.35(2012년) |

- 예멘은 한반도의 2.4배 넓이의 국토에 25.4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매장량의 점진적 고갈로 인해 1인당 GDP가 1,538달러에 불과한 중동 지역의 빈곤국임.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의 판매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차례 외채 리스케줄링을 경험하였음.
- 1990년 이슬람 국가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국가인 남예멘이 통일된 이후 북예멘 출신의 살레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였으나, 2011년 2월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여 2012년 초에 정권이 교체되고 하디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과도정부 수립 후에도 여당 내 친 살레파 잔존, 남부 분리주의 세력과 북부 시아파 세력의 범국민대화 참여 거부 및 중앙정부에 대한 항쟁 지속 등 정세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f |
|------------|------|------|-------|------|-------------------|
| 경제성장률 | 3.9 | 7.7 | -10.5 | 1.3 | 5.1 |
| 재정수지 / GDP | -8.5 | -3.9 | -6.3 | -9.8 | -8.8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4 | 11.2 | 19.5 | 9.9 | 11.1 |

자료: EIU.

□ 2011년 사회혼란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기록

- 지속적인 산유량 감소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2007~09년 경제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였음.
- 2010년에는 미국의 원조 증가와 신규 가스전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2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영향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며 성장률이 -10.5%로 급락하였음.
- 관련 부서(new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er)에 따르면 소요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경제성장률은 1.3%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민간부문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한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석유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전체 재정수입의 70%)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적자 기조를 지속하여 왔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에 더하여 예멘 남부 지역에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설립되어 국제적인 테러 근거지로 등장함에 따라 해외투자 유입이 감소하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8.5%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하여 GDP 대비 3.9%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재정지출 증가로 그 폭이 다시 6.3%로 증가하였음.
- 원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보다는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여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201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9.8%로 확대되었음. 2013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됨에 따라 재정적자는 GDP 대비 8.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대외 여건변화에 민감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 세계 경기침체와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에 따라 전년(19.0%) 대비 크게 하락한 5.4%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다시 11.2%로 상승하는 등 국제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2011년에는 소요사태에 따른 해외투자 유입 중단으로 리알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생필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대로 급등함.
 - 예멘은 금융제도의 미비로 정부가 이자율조정보다는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리알화 환율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12년에는 치안 상태가 호전되면서 생필품 품귀 현상이 완화되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9%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국제 상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치안불안으로 인한 원활한 소비재 공급의 지장에 영향을 받아 11.1%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석유산업은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유가의 등락이 경제를 좌우함. 그러나 신규 유전 탐사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매장량이 30억 배럴(2012년 기준)로 한정되어 있어 매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원유 생산량(b/d): 30.6만('09) → 29.1만('10) → 22.8만('11) → 18.0만('12)

- 정부는 일반소비세(General Sales Tax: GST)를 도입하며 세수를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 산업인 농업의 생산성이 낮아 식량의 해외 의존도 증가세

- 인구의 약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국토의 6%만이 경작 가능한 토지임.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비료구입 여력이 없어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 고질적인 물 부족문제로 농업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의 40% 이상이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해 있음.

- 식량자급율이 25%에 불과하며, 카트*(qat) 경작 확산으로 식량 작물 경작지가 감소하면서 곡물 수입 규모가 2006년 12억 달러에서 2009년 23억 달러로 급증하는 등 식량용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카트는 환각성을 가진 식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국제 유통이 금지되었으나, 예멘인들이 전통적으로 즐기는 기호품임. 환금성이 높아 곡물 대신 카트를 재배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 생산 개시로 추가 재정수입 확보

- 2005년 승인된 Yemen LNG(YLNG) 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에 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되어 향후 25년간 연 620만 톤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예멘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012년 기준 16.9조 ft³임.
- 동 프로젝트에는 프랑스의 TOTAL(39.6%), 미국의 Hunt(17.2%), 예멘가스공사(16.7%), 예멘사회보장연금청(5%) 외에도 한국 사업주들이 다수 참여하였음(한국가스공사 8.9%, 현대종합상사 3%, SK에너지 6.9%, 삼환기업 1.6%, 한국석유공사 1.1%).
- 예멘 정부는 매장량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원유를 대체할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천연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Kuwait Energy사의 지원으로 정확한 가스 부존량을 조사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다. 정책성과

□ 경제 다각화 추진 성과는 미미

- 2006년부터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천연가스, 농업, 수산업 및 관광업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천연가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교통,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제조업 개발을 10대 국가개발어젠다에 포함시켜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전력 등 기초 인프라가 미비하여 산업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또 교육받은 숙련된 노동력과 지하수, 원자재 등이 부족한 데 더해 소요사태 및 정국 불안이 겹치며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석유 판매수입 외의 재정수입 확보 노력

- 2010년 발표된 중기개발계획은 재정수입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GDP의 8~10%를 차지하는 연료보조금을 철폐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함.
- 예멘광물청(GSMRB)은 그간 석유, 가스에 비하여 개발이 뒤쳐진 광물 자원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예멘에는 아연, 은, 금, 구리 등의 금속광물 및 대리석, 석고 등 산업용 석재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f |
|-------------------|--------|--------|--------|--------|-------------------|
| 경 상 수 지 | -2,565 | -1,725 | -1,663 | -947 | -1,097 |
| 경 상 수 지 / G D P | -8.6 | -5.4 | -4.5 | -2.4 | -2.3 |
| 상 품 수 지 | -2,013 | -1,051 | 414 | -3,678 | -1,951 |
| 수 출 | 5,855 | 7,650 | 8,662 | 7,604 | 7,963 |
| 수 입 | 7,868 | 8,700 | 8,248 | 11,282 | 9,914 |
| 외 환 보 유 액 | 6,993 | 5,942 | 4,531 | 6,158 | 5,504 |
| 총 외 채 잔 액 | 6,734 | 6,682 | 6,418 | 7,324 | 7,607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22.5 | 20.9 | 17.3 | 18.8 | 16.3 |
| D S R | 4.0 | 3.1 | 3.3 | 3.3 | n/a |

자료: EIU, CRAM.

□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상품수지는 석유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여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유가 하락에 의한 수출액의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20억 달러까지 확대되며 경상수지 적자도 근래 최고치인 약 26억 달러를 기록한바 있음.
- 2010년에는 국제사회의 원조와 유가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17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에는 석유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감소함.
- 2012년에는 석유생산량 감소가 수출 감소로 이어져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GCC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증가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9억 달러 규모로 감소세를 이어감.

□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감소 후 최근 회복세

- 오일머니에 힘입어 2008년말 82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은 원유수출액 감소와 2011년 시위사태 여파로 급격히 줄어들어 2011년 말 45억 달러를 기록함.
 - 2011년에는 시위사태 장기화로 달러의 인출이 급증하고, 해외투자 유입이 중단되며 예멘 리얄화의 가치하락이 심화되자,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월 3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말 외환보유액은 사우디의 예멘중앙은행 앞 10억 달러 예치,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62억 달러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발생한 반정부시위로 극심한 혼란

- 튀니지와 이집트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예멘에서도 살레(Ali Abdullah Saleh) 전 대통령의 퇴진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2011년 2월부터 발생하였음.
- 살레는 1978년 쿠데타를 통해 북예멘 대통령이 되었고, 1990년 통일 예멘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34년 동안 집권하였음. 이는 세계에서 리비아의 카다피 전 국가원수 다음으로 긴 집권기간임.
- 2011년 1월 예멘 의회가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려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음.
- 살레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경진압하였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하시드(Hasid) 부족과의 교전이 반복되며 1년 동안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음.
- 정부에 따르면 시위가 발생한 지난 1년간 2천여명이 사망하고, 2만 2천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짐.

□ GCC 이니셔티브에 따라 2012년 정권 교체 후 과도정부 수립

- 예멘의 반정부시위 사태가 장기화되자 GCC가 권력이양 협상을 통한 해결에 나섰으며, GCC 중재의 권력이양안(GCC 이니셔티브)이 타결됨에 따라 살레 전 대통령이 2011년 11월에 조기선거안에 동의하고 2012년 1월에 출국한 후 2월에 대선이 실시되었음.
-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일부 남부 세력(Southern Mobility Movement)이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였으나, 60%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임.

- 단일후보로 출마한 하디(Abdel-Rabbuh Mansour Hadi) 전 부통령이 당선되어 2014년 대선까지 과도정부를 이끌 예정임.
- 하디 대통령은 1994년부터 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회당(General People's Congress: GPC)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18년간 예멘의 2인자 역할을 해 왔음.

□ 신 정권 수립 이후에도 친정부와 반정부 세력간 갈등 지속

- 수도 사나를 비롯한 예멘 곳곳에서는 여전히 반정부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시위 참가자들은 전 살레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측근인 하디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 GCC 이니셔티브에 따라 살레는 퇴진 이후 형사상 면책을 보장받음.
- 정권교체 이후 구 살레 정권하의 친정부세력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음.
- 2012년 4월에는 하디 대통령이 살레 전 대통령의 이복형제인 알 아흐마르 참모총장을 해임하자 일부 공군 장교들이 수도인 사나의 공항을 포위하고 비행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항이 전면 폐쇄되었음.

□ 하디 정부는 군부 개편 등 정세안정화 노력 지속

- 하디 대통령은 미약한 권력기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주요 도심 병력 철수, 군부 개편, 범국민대화회의 출범 등 정세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4월 광범위한 군부 개편을 실시하여 아메드 공화국수비대 사령관(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 알리 준장 등 친 살레 세력의 주요 인물을 축출함.

□ 범국민대화회의 출범, 갈등 노출로 기한 내 협의 도달 의문시

- GCC 이니셔티브 이행계획에 따라 범국민대화회의(National Dialogue Conference)가 2013년 3월 출범하여 국민화해, 신헌법 초안 마련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NDC에서 마련한 신헌법에 대해 2013년 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확정된 헌법과 선거제도에 근거하여 2014년 중 대선 및 총선을 실시하여 과도정부에서 신정부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GCC 이니셔티브의 계획임.
- 2013년 7월 개최된 NDC 총회에서 9개 분과위원회 중 각각 남부 분리주의 문제, 북부 시아파 갈등, 헌법·선거제도 구상을 담당한 3개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이 무산됨에 따라 9월 18일까지로 예정된 범국민대화 기한 내에 NDC가 원만한 협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지방 부족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미미

- 예멘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통제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여 지방세력의 자치형태를 띠고 있음. 이슬람주의의 북부 지역에서는 일부 부족들이 외국인을 납치하고 송유관을 공격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예멘에는 1,700여개의 부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부족들은 중앙정부보다 소속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해 예멘은 영토적 국가정체성이 약함.
- 북부 사다(Sadaa)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수천 명의 시아파 반군은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적 소외에 대한 불만으로 수년간 정부와 교전을 벌이다 2010년 2월 휴전에 합의하였음.

□ 일부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범국민대화 동참 거부 및 중앙정부 앞 항쟁 지속

- 남부 분리주의 운동은 2007년 남부 지역에서 1994년 남·북예멘 간 내전 이후 강제 퇴역당한 남부 군인들이 복직과 연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가 발발한 데서 촉발되었으며, 이후 남부의 정치·경제적 소외에 대한 불만이 겹쳐 악화됨.
- 예멘 정부의 진압수위가 높아지고 시위도 점점 과격해지면서 남부의 자치 및 경제적 평등을 넘어 분리독립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분리주의 운동으로 발전함.
- 살레 대통령 퇴진 이후에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 전개하였으며, UN 예멘특사와 하디 대통령의 설득으로 일부 온건 세력은 범국민 대화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레바논 망명 중인 알바이드 전 부통령 등 강경세력은 범국민대화를 거부하고 있음.

□ 국제테러조직(AQAP)의 세력 확장으로 치안불안 심화

- 예멘 남부 지역에서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부와 예멘 지부가 통합하여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를 출범시키며 국제테러세력의 중심지로 등장하였음.
- AQAP는 2010년 1월 ‘아덴 아비안’군을 창설하여 조직을 체계화하고 예멘 주재 영국 대사관 폭탄테러, 소포 폭탄 테러 등 다수의 테러사건을 저지르며 예멘 및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 예멘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련 혐의자를 체포하는 등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적극 협조하며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2009년 12월 AQAP에 의한 미 여객기 폭파 시도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예멘에

대한 대테러 군사원조 및 경제개발 지원을 강화함.

- 미국은 2010년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1억 5천만 달러를 예멘에 지원함.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예멘 정부의 정세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자 2012년 5월 16일 GCC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방해하는 모든 자연인·법인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규정한 행정명령을 공포하는 등 하디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

□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깊이 의존

- 예멘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원하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예멘 노동자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가에서의 해외근로자 송금은 예멘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임.
- 그러나 200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협정 체결과 쿠웨이트 내 예멘 대사관 설립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2006년 국제 원조회의(donor conference)에서 GCC 국가들이 27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 2010년에는 예멘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위하여 '예멘의 친구들'(Friend of Yemen) 모임이 결성되었으며, 2012년 5월 리야드에서 개최된 각료급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32.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공약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 4월 이민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최초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당시에 비자를 추천한 사우디아라비아 고용주 이외의 직장에 근무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대 30만 명의 예멘인이 추방 위기에 처하면서 양국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외채부담 경감

- 과거 파리클럽 등을 통해 수차례 외채를 리스케줄링하였고, 세계은행의 고채무빈국(HIPC)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았음.
 - 1996년과 1997년 파리클럽과의 두 차례의 채무재조정으로 60억 달러의 채무경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001년에도 2.5억 달러의 외채 탕감 및 3.95억 달러의 리스케줄링에 합의하였음.
 - 정부는 IMF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빈곤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채무재조정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05년에는 자체 외채상환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HIPC 대상국가에서 제외되었음.
- IMF는 2010년 예멘에 3억 6,980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ECF)의 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성과 치안 문제로 무기한 중단하였음. 최근 예멘 정국이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 IMF는 ECF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4월 9억 3,750만 달러의 긴급신용차관(Rapid Credit Facility)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 OECD의 평가등급은 2012년 3월 기준 7등급으로 2010년 4월 이후 계속 최저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는 예멘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중단기 인수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5. 8. 22. 수교(북한과는 1963. 3. 9. 수교)
- 주요 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협정('03)

<표 3> 한·예멘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 구 분 | 2010 | 2011 | 2012 | 주요 품목 |
|-----|---------|-----------|-----------|-------------------------|
| 수 출 | 205,195 | 83,955 | 139,645 | 자동차, 인조장섬유직물, 건전지 및 축전지 |
| 수 입 | 420,695 | 1,126,526 | 1,101,839 | 천연가스, 석유제품, 동제품 |
| 합 계 | 625,890 | 1,210,481 | 1,241,484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와의 2012년 교역규모는 약 12억 4천만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인조장섬유직물, 건전지 및 축전지를 중심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 수입은 천연가스, 석유제품, 동제품을 중심으로 약 1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해외직접투자(2012년 3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8건, 1,294,574천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예멘 직접투자는 중동 지역 1위로 높은 수준이나(대부분이 LNG 사업 등 원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2011년 이후 시위사태의 영향으로 신규 설립된 법인이 없고 투자가 미미하였음.

V. 종합의견

-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 지역의 빈국으로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평균 4%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지속되는 산유량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2011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시위가 지속된 결과 GCC 이니셔티브에 따라 34년간 집권해온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고 하디 전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섰으나, 차기 정권으로의 권력이양을 위한 범국민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거 여러 차례 채무 리스케줄링을 경험하였으나, D.S.R.이 3% 수준으로 매우 낮고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단기 외채 상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주은(☎02-3779-5727)

E-mail: june@koreaexim.go.kr